

글로벌 제주를 위한

#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31



#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日本經濟新聞

※ 대상 기간 : 2025.03.06.-2025.03.12

<b>1</b>	<b>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b>	<b>1</b>
<b>2</b>	<b>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b>	<b>6</b>
	▪ <b>중국</b>	
	-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베이징서 폐막	6
	- 차량용 고압 수소저장용기 화재폭발시험 대련에서 성공	6
	- 광시 난닝, 동남아시아를 겨냥한 인공지능 산업 중심지 조성	7
	- 베이징, 서비스형 제조 생태계 최적화 위한 신정책 발표	7
	- 에너지 구조 전환 계속 추진, 새 발전 목표 제시	8
	- 중국은 왜 저공(低空) 경제에 주목해야 하는가	8
	- 신형 에너지 체계와 산업 체계의 결합 발전 강조	9
	- 청사진에서 현실로, 저공 경제 본격 성장	9
	- 중국 제조 전면 업그레이드, 산업인터넷 모든 공업 분야에 보급	10
	-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새로운 자본시장 개혁 전면 실시	10
	▪ <b>일본</b>	
	- 후쿠오카 경기 토론회: 지역경제, 반도체·방문객 증가로 활기	11
	- 도호쿠 순회 루트, 연안 고속도로로 활기	11
	- 오카야마현의 방일객 유치, 태국·프랑스에 주목	12
	- 도심 공장, 이미지 쇄신으로 관광·고용 효과 노린다	12
	- 다이와하우스, 메탄을 고효율로 메탄을 전환 기술 개발	13

- 도쿄도 내 기업, 인력 부족으로 과반이 경영 차질 .....	13
- 정부, 후쿠시마 부흥 성과 전국에 확대 목표 .....	14
- 방재 기능 갖춘 '방재 휴게소' .....	14
- 규슈·오키나와 2월 도산 6개월 연속 증가: 의료·복지 업종 고전 .....	15
- 후쿠오카현 합계출산율, 6년 연속 하락: 현 수준 1.26 .....	15
<b>■ 태국</b>	
- 태국, 말레이시아에 홍수 대책·무역 통로 사업 신속 추진 촉구 .....	16
<b>■ 필리핀</b>	
- 필리핀, 2025년 1월 관광수입 팬데믹 이전 수준 상회 .....	16
<b>■ 베트남</b>	
- 베트남, 뉴질랜드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	22
<b>■ 말레이시아</b>	
- 말레이시아, 美 AI 칩 수출 제한 시 자국 기술력 강화 가능성 시사 .....	17
- 말레이시아, 전력 가격 안정화 위해 석탄 발전 유지 결정 .....	17
- 말레이시아, 연내 디지털경제프레임워크협정 타결 추진 .....	17
- 말레이시아, 英 ARM과 반도체 산업 육성 협력 강화 .....	18
- 말레이시아, 중국·인도와 토륨 원자력 기술 협력 추진 .....	18
- 말레이시아, 美 관세 대응 위해 아세안 시장 개척 촉구 .....	19
<b>■ 캄보디아</b>	
- 캄보디아, 홍콩무역발전국과 기술 협력 강화 .....	19
- 캄보디아, 아세안 비즈니스 서밋 2025 개최...연계성 강화 초점 .....	19
- 캄보디아, ASEAN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위한 공정·투명 무역 추진 .....	20

#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 중국

-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막하며 정부 업무 보고와 예산안 승인, 시진핑 주석의 주석령 서명 완료. 정부는 개혁과 민생 강화를 추진하며 법제 개혁과 국가 거버넌스 향상 도모. ‘14차 5개년 계획’ 마무리와 국민경제·사회발전 방향 구체화
- ✓ 대련에서 차량용 고압 수소저장용기의 화재폭발시험 성공. 연구진은 고온·고압 환경에서 폭발 과정을 재현하고 안전성을 평가하여 핵심 데이터 확보. 이번 성과는 중국의 수소에너지 기술 수준을 국제적으로 선도할 가능성을 높이고, 수소연료전지차 및 관련 산업 확대에 기여
- ✓ 광시 난닝시가 AI 산업을 육성하고 동남아 협력 확대. 중국-동남아 인공지능 혁신협력센터와 AI 계산센터 운영, 기업들의 개발 환경 조성. 지방정부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5G와 연계하여 인공지능 응용을 확장하고 지역 AI 산업 생태계 고도화 추진
- ✓ 베이징시가 서비스형 제조 생태계 최적화와 산업 구조 고도화 추진. 기존 제조업에 지능형 연구개발, 공유 설비 도입 확대하며 AI와 빅데이터 활용하는 혁신 모델 육성.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서비스형 제조 주도의 산업 혁신 유도와 전국적인 모범 사례 정착 추진
- ✓ 국가에너지국이 2025년까지 전국 발전설비 용량 36억kW 이상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2억kW 증설 추진. 정부는 송전망 확충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용 능력 제고, 산업·교통·건물 부문의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과 녹색 저탄소 발전 가속화
- ✓ 중국 정부가 저공 경제의 성장을 본격 추진. 3,000m 이하 저고도 공역을 활용하는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드론 및 경량 항공기 제조·운영 확대.

농업, 물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증가, 체계적인 공역 관리 및 안전 규정 정비 필요

- ✓ 중국이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산업의 전동화·디지털화 촉진. 풍력, 태양광, 수소 등 녹색 에너지 공급 확대와 생산 공정 탈탄소화 추진. 정부는 에너지-산업 부문 간 협력 제도적 지원,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 목표로 설정
- ✓ 중국 정부가 무인기 물류 배송과 공중 공연 등 저공 경제 성장 가능성 주목. 2024년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저공 경제 개념 첫 반영, 시장 규모 5,000억 위안 초과. 안전한 공역 관리와 핵심 기술 발전 필요, 도심 항공 이동성과 무인 항공 생태계 확대 기대
- ✓ 중국이 산업인터넷을 공업 생산과 디지털 기술 결합하는 핵심 동력으로 육성. 공업 전 분야에서 적용 확산과 5G, AI 융합을 통한 스마트 제조 발전.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표준 마련을 지원하며 산업인터넷을 신형 공업화 핵심 엔진으로 육성
- ✓ 중국 증권감독위원회가 자본시장 개혁 추진과 증시 회복, 혁신기업 상장 지원. 정부는 중·장기 자금 유입 촉진으로 시장 안정성 강화와 대외개방 확대, 법규 정비를 통한 불법 행위 단속.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 도모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 ○ 일본

- ✓ 후쿠오카 경제가 반도체·자동차 투자 증가와 해외 관광객 유입 확대로 성장세 지속. 대만 반도체 기업 진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 효과 23조 원 규모로 추산. 지역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 선순환 필요, 관광·물류 확장과 인력난 해소 위한 DX 투자 강조
- ✓ 도호쿠 연안 도로가 전 구간 개통되며 관광·물류 활성화 기대. 미야코항 크루즈 증가와 연안 지역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객 유입 증가 예상.

그러나 인구 감소 문제 대응 필요, 광역 관광과 정주 인구 유지 전략 병행 과제

- ✓ 오카야마현이 태국·프랑스 관광객 유치에 위해 체류형 관광 모델 구축. SNS 홍보, 팸투어 활용과 최소 2박 여행 코스 개발.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프랑스 관광객 대상으로 접근성 강조, 오카야마를 체류 거점으로 육성
- ✓ 도심 제조업체가 공장 견학과 VR 투어를 활용해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신규 인력 유치 성공. 생산 현장 개방과 기술 홍보 강화로 기업 경쟁력 확보. 젊은층 채용 증가, 맞춤형 주문 사업 확장과 소규모 공장 생존 전략 마련
- ✓ 일본 다이와하우스가 메탄의 89%를 메탄올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상온·상압에서 높은 전환율을 실현하며 장치 소형화 가능. 2030년까지 공장·사무실 적용 목표,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활용 극대화 추진
- ✓ 도쿄 기업 53.6%가 인력 부족으로 경영 차질을 겪고 있으며, 신규 점포 개설 포기과 장시간 노동 증가 문제 발생. 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 인상 계획이 80% 이상으로 나타나며, 인건비 상승과 기업 경영 부담이 주요 과제로 부상
-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혁신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로봇·우주·의료 산업을 육성. 규제 완화와 벤처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인구 유출 억제를 위해 추가 지원 지속과 신산업 유치 확대
- ✓ 일본 국토교통성이 방재 휴게소 39곳을 지정하며 구호물자 비축과 재해 대응 강화. 통신·전력·식량 지원 체계 구축과 안전 이미지 향상 기대. 재정 지원과 방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필요
- ✓ 규슈·오키나와 지역의 기업 도산이 6개월 연속 증가하며 의료·복지업이 주요 피해 업종으로 지목. 무이자·무담보 대출 상환 본격화로 파산 위험 증가. 재무 안정화 노력과 업종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 필요

- ✓ 후쿠오카현의 합계출산율이 6년 연속 하락하며 1.26을 기록. 양육비 부담과 직장 병행의 어려움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 남성 육아휴직 확대와 양육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며,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 구축 과제

## ○ 태국

- ✓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국경지역 홍수 대응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논의하며 협력을 강화. 통합 유역 관리와 국경 경계 정비 추진, 교역 활성화를 위한 도로·물류 인프라 확충 계획

## ○ 필리핀

- ✓ 필리핀 관광수입이 2025년 1월 기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초과하며 경제 성장에 기여. 한국·미국·일본 관광객이 주요 방문국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관광 마케팅과 혁신 전략 추진

##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가 AI 칩 수출 제한에 대응하여 자국 기술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공장 설립 목표 추진. AI 칩 관련 국제 협력 확대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 MOU 활용을 통한 기술 의존도 완화 노력
- ✓ 말레이시아가 전력 가격 안정을 위해 석탄 발전을 유지하는 정책 발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고려하여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자력 발전 검토
- ✓ 말레이시아가 디지털경제프레임워크협정 타결을 연내 추진하며 아세안 디지털 통합과 데이터 관리,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 디지털 산업 경쟁력 확대와 역내 디지털 경제 성장 촉진 기대

- ✓ 말레이시아와 영국 반도체 기업 ARM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 강화. IC 설계 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 도입과 반도체 투자 유치 확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말레이시아 경쟁력 강화
- ✓ 말레이시아가 중국·인도와 토륨 원자력 기술 협력을 확대하며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원 개발 추진. 국내 토륨 추출·정제 기술 연구와 국제 협력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원 활용 가능성 모색
- ✓ 말레이시아가 미국의 태양광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아세안 시장 개척을 추진하며, 태양광 산업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 마련. 역내 태양광 공급망 강화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 ○ 캄보디아

- ✓ 캄보디아가 홍콩무역발전국과 기술 혁신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 추진. 핀테크 및 전자결제 기반 디지털 전환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확대
- ✓ 캄보디아가 아세안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하며 인프라 개발, 디지털 연계성, 무역 촉진을 강조 해외 투자 유치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과 아세안 경제공동체 발전 지원
- ✓ 캄보디아가 무역 자유화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주요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통관 절차 간소화와 법률 체계 정비로 무역 활성화 도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한민국	<p>○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베이징서 폐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1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가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공식 폐막. 회의에서 정부 업무 보고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 보고 등을 승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45호 주석령에 서명</li> <li>- 이번 대회에서는 2025년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중앙·지방 예산안,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업무 보고 등의 주요 사안을 심의. 각 보고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하고 올해 경제사회 운영 방향을 구체화</li> <li>- 폐막식 연설에서, 당과 국가 지도부는 ‘제14차 5개년 계획’의 마무리 해에 맞추어 안정과 발전을 함께 도모할 것을 강조. 특히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개혁과 민생 개선, 장기적 법제 강화를 통해 국가 거버넌스 수준을 제고</li> </ul> <p>○ 차량용 고압 수소저장용기 화재폭발시험 대련에서 성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련 검측인증그룹과 저장대학교, 대련이공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한 70메가파스칼(MPa)급 차량용 수소저장용기 화재폭발 시험이 최근 대련에서 완료. 이는 국제 수소에너지 안전 분야의 기술 공백을 보완</li> <li>- 이번 시험은 극도로 위험한 화재 환경에서 고압 수소저장용기가 실제 폭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재현, 약 20분간 내부 압력이 70MPa에서 110MPa로 상승하는 상황을 관측. 이를 통해 수소저장용기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핵심 데이터를 확보</li> <li>- 실험센터 측은 이 결과가 중국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 선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 내압 설계, 화재 대응 및 안전장치</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수소연료전지차 분야를 비롯해 수소 기반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성을 확대</p> <p>○ <b>광시 난닝, 동남아시아를 겨냥한 인공지능 산업 중심지 조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시 난닝시는 인공지능(AI) 등 신흥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마련 중. 현재 중국-동남아시아 인공지능 혁신협력센터 등을 추진하며 AI 기반 프로젝트를 가속화</li> <li>- 특히 중국-동남아시아 인공지능 계산센터 등이 이미 건설 완료되어 가동. 난닝 오상신구(五象新區)의 AI 지산(智算) 산업단지는 계산 능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li> <li>- 난닝·중관촌 등 혁신 거점을 통해 다양한 ‘인공지능+’ 응용 분야가 확대. 지방정부는 향후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5G와의 연계를 심화하며 지역 내 AI 산업생태계를 고도화</li> </ul>
	<p>○ <b>베이징, 서비스형 제조 생태계 최적화 위한 신정책 발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징시가 서비스형 제조를 통해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첨단화된 생산·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 전통 제조업에 서비스 요소를 결합해 혁신 모델을 육성</li> <li>- 이번 ‘서비스형 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방안(2025~2027년)’은 지식집약·기술집약적 산업을 핵심으로 지정해, 지능화된 연구개발, 공동 제조·공유 설비, 맞춤형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형 제조 모델을 지원</li> <li>- 베이징시는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서비스형 제조에 대한 정책·재정적 우대를 확대. 이를 통해 서비스형 제조가 주도하는 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전국적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을 목표</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b>중국</b>	<p>○ <b>에너지 구조 전환 계속 추진, 새 발전 목표 제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에너지국이 발표한 ‘2025년 에너지 업무 지도 의견’에 따르면, 올해 전국 발전설비 총용량이 36억kW 이상에 도달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억kW 이상 늘릴 계획</li> <li>- 석탄 안정 공급과 원유·천연가스 증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중점 추진, 전력 계통 내 신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송전망 건설도 가속화. 산업·교통·건물 등 부문에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li> <li>-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면서 녹색 저탄소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 수력·풍력·태양광과 같은 비화석에너지가 발전설비 비중의 60%에 도달하도록 하고, ‘14차 5개년 계획’ 완성과 ‘15차 5개년 계획’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li> </ul> <p>○ <b>중국은 왜 저공(低空) 경제에 주목해야 하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공 경제는 3,000m 이하의 저고도 공역을 활용해 연계된 산업 활동을 의미. 무인기, 경량항공기 등 다양한 비행체의 생산·운영 서비스가 핵심이며, 농업·물류·관광 등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 기대</li> <li>-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도 이미 저공 경제에 관심을 두고 관련 정책·기술을 적극 추진. 중국도 농업용 드론, 도시 물류 시스템, 응급 구조 등 광범위한 응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도·관리체계 정비가 시급</li> <li>- 저공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행 기체 제작부터 공역 관리, 안전 규정, 운용 인프라 구축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중국 각 지역별 산업특성과 연계해 제조·서비스 역량을 확장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향후 고성장을 도모</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 <b>신형 에너지 체계와 산업 체계의 결합 발전 강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혁신은 단순히 전력이나 석유·가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구조와 상호 연계되어야 함.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산업 체계 역시 동반 전환이 필수</li> <li>- 특히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맞게 풍력·태양광·수소 등 다양한 녹색 에너지를 공급·활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생산 공정의 탈탄소화를 촉진. 이때 산업의 전동화·디지털화를 결합해 효율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li> <li>- 정부 차원에서는 에너지-산업 부문 간 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관련 정책·재정을 동원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유도. 최종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기후 목표 달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델 구축이 목표</li> </ul>
중국	<p>○ <b>청사진에서 현실로, 저공 경제 본격 성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기를 활용한 생선·의약품 등 물류 배송 시범이 중국 여러 지역에서 가시화. 한편 무인기 군집 기술로 연출하는 ‘공중극장’이 각종 이벤트에서 등장해 관람 인파가 백만 명을 넘어서는 사례도 확인</li> <li>- 2024년, ‘저공 경제’라는 개념이 정부 업무 보고에 처음 명시되면서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시작. 이에 힘입어 현재 중국의 저공 경제 규모는 5000억 위안 이상으로 추정, 향후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이 기대</li> <li>- 안전한 공역 관리와 통합 운용 체계를 정비하고, 핵심 기술인 통신·에너지·인공지능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 향후 도시 간 저공 여객 노선, 군집형 물류 배송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 항공 생태계가 확대될 전망</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b>중국</b>	<p>○ <b>중국 제조 전면 업그레이드, 산업인터넷 모든 공업 분야에 보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인터넷은 공업 생산 현장과 디지털 기술을 연결하여 설비·인력·자원의 효율을 높이는 기반으로 각광. 현재 중국에서는 공업 부문의 49개 대분야 전부에 적용이 확산</li> <li>- 고속 철도용 동력장치 등 첨단 제품 생산 현장에서 로봇 용접, AR 기반 가상훈련, 무인 창고관리 등 혁신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으로 작업 정확도와 생산성을 대폭 향상</li> <li>- 산업인터넷의 차세대 진화는 5G,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결합해 ‘스마트 제조’로 확장. 정부도 인프라 구축과 관련 표준 마련에 주력, ‘신형 공업화’의 핵심 엔진으로 적극 육성하는 기조</li> </ul>
	<p>○ <b>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새로운 자본시장 개혁 전면 실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11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가 확대회의를 개최, 전국 양회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 투·융자 종합개혁을 축으로 새로운 개혁 패키지를 본격 시행할 것임을 천명</li> <li>- 증감회는 증시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과학기술 혁신형 기업 상장 등을 통해 경제 고도화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계획. 동시에 중·장기 자금 유입 촉진책을 강화하여 시장 안정 정책을 마련</li> <li>- 대외개방 수준을 한층 높이고, 법규 체계를 개선해 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엄정히 시행하는 것을 강조. 이를 통해 자본시장 안전성을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동시 달성하는 목표 설정</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후쿠오카 경기 토론회: 지역경제, 반도체·방문객 증가로 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10일 후쿠오카에서 열린 지역 경제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및 자동차 분야의 대규모 투자와 해외 관광객 증가가 맞물려, 규슈 경제가 전국을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 다양한 업계 대표들이 노동력 부족과 ICT 투자 확대 필요성을 함께 논의</li> <li>- 규슈파이낸셜그룹 대표는 대만 반도체 기업 진출로 지역에 약 23조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 하지만 외부 자본만 몰릴 경우 고용소득 외 이익이 빠져나가는 ‘오키나와 현상’ 을 경계하며, 지역 기업 투자 참여와 금융권의 리스크 테이크 역할을 강조</li> <li>- 한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권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인구·기업 집적이 가속될 것으로 관측. 반도체 관련 대만 업체 진출과 인바운드 확대가 시너지로 작용하며, 전 지역이 관광·물류 분야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 다만 저출산·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DX 및 인적 투자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li> </ul> <hr/> <p>○ 도호쿠 순회 루트, 연안 고속도로로 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본대지진의 복구 도로로 정비된 연안 자동차전용도로가 구간 개통되며, 도호쿠 태평양 연안 지역에 새로운 인적 흐름이 형성. 기존에는 내륙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이동 경로가 연안까지 확장되고, 관광 자원의 활성화가 기대</li> <li>- 특히 이와테현 미야코항에는 국내외 크루즈선 기항이 크게 늘어, 단시간 내 주변 관광지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이 탄력. 연안도로·내륙도로가 교차해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주변 도시들도 이 교통망을 발판으로 방문객 확대를 도모</li> <li>- 다만 연안 시정촌의 인구 감소와 센다이로의 ‘빨대 효과’ 가 진행돼, 거주 인구가 줄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 도로망 확충이 광역 관광에는 기여하지만, 장기 체류형 콘텐츠 개발 및 지역 간 연계 발전으로 정주 인구 유지도 병행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는 실정</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b>오카야마현의 방일객 유치, 태국·프랑스에 주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카야마현이 직항 노선이 없는 국가들로부터의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태국과 프랑스를 중점 공략. JR니시니혼과 손잡고 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팸투어를 진행, ‘지나쳐 가는 관광’ 이 아닌 체류형 관광 모델 구축을 시도</li> <li>- 태국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딸기 수확과 현대미술관 체험 등을 선보였으며, SNS 촬영을 즐기는 태국인의 성향을 반영해 충분한 사진 촬영 시간을 배려. 이를 통해 최소 2박 이상의 프로그램을 마련, 주변 지역까지 아우르는 코스 개발을 촉진</li> <li>- 프랑스 시장도 후乐园 등 주요 관광 자원이 인기를 끌며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 현은 도쿄 등 수도권 관문에서 들어오는 8할 이상의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광역 여행 편의를 강조해 오카야마를 체류 거점으로 부각할 계획</li> </ul> <p>○ <b>도심 공장, 이미지 쇄신으로 관광·고용 효과 노린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토야마현의 전통 주조 업체는 공장 견학을 무료로 개방해 연간 13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신규 인력 채용에 성공. 생산 공정을 직접 볼 수 있는 현장 체험이 기술력 홍보와 매출 증가에 기여</li> <li>- 또 다른 제조사들은 VR 투어를 도입해, 해외 인재 채용과 기업 설명회에서 공장 내부를 실감 있게 소개. 공개를 기피하던 생산 현장을 적극 개방함으로써 숙련 기술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문 확대와 전문 인력 확보에 긍정적 효과</li> <li>- 작업복을 데님으로 바꾸고 카페를 조성하는 등 ‘재미있는 회사’ 로의 이미지 전환도 시도. 이로 인해 젊은층 입사자가 늘고, 맞춤형 주문 사업도 확대. 후계자 부족과 수요 침체를 겪는 소규모 공장이 외부 발신력 강화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추세</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b>다이와하우스, 메탄을 고효율로 메탄을 전환 기술 개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다이와하우스가 오사카대학과 공동 연구로 메탄의 약 89%를 메탄올로 전환하는 합성 기법을 완성. 식품 찌꺼기나 축산분뇨 등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활용할 수 있어, 천연가스 없이도 탈탄소에 기여 가능</li> <li>- 기존 메탄올 생산은 높은 온도와 압력을 필요로 했으나, 새로운 용매를 도입해 상온·상압 조건에서도 높은 효율을 실현. 반응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 장치 소형화가 가능, 향후 산업 전반에 적용 범위 확대</li> <li>- 다이와하우스 측은 2030년경 자사 공장·사무실 연료 전환에 우선 도입하고, 궁극적으로 대외 보급까지 겨냥. 바이오가스를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활용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li> </ul>
	<p>○ <b>도쿄도 내 기업, 인력 부족으로 과반이 경영 차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민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쿄 소재 기업 중 53.6%가 인력 부족으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 운수·건설업에서 특히 심각하며, 업무 과중이나 주문 거절 등으로 매출 손실이 발생</li> <li>- 일부 기업은 인력난 탓에 신규 점포 개설을 포기하거나 기존 거점을 축소, 현장 직원의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 하락과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우려</li> <li>- 한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올해 임금 인상을 계획. 인력 유치와 기존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보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인건비 상승이 기업 경영의 주요 과제로 부상</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정부, 후쿠시마 부흥 성과 전국에 확대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의 ‘이노베이션·코스트 구상’을 지방 창생의 모범 사례로 삼아, 다른 지역에 전파할 방침. 로봇·우주·의료·폐로(廢炉) 등 첨단산업 집적과 인재 육성 실적을 공유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체를 신설</li> <li>-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추진해온 규제 완화, 벤처 육성, 지방 기업 지원 노하우를 적용해 인구 감소 지역에 활력을 주겠다는 계획. 특히 차세대 산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선순환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li> <li>- 한편 지진 피해 이후 후쿠시마현 인구는 200만 명대에서 170만 명대로 줄어, 인구 유출 억제가 시급. 정부는 ‘제2기 부흥·창생 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 5년간도 집약적 지원을 지속해, 인력 확보와 신산업 유치로 복구 성과를 높이겠다고 발표</li> </ul>
	<p>○ 방재 기능 갖춘 ‘방재 휴게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전국 1,200여 곳의 ‘도로나역(道の駅)’ 중 39개가 국토교통성 지정 ‘방재 휴게소’로 선정. 대규모 재해 시 구호 물자 비축과 피난소 역할을 맡으며, 호우·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실정</li> <li>- 일부 시설은 무선 통신, 발전 설비, 식량·담요 등 방재 물품을 구비해 평상시에도 안전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 기대. 지진 등에 대비해 고지대에 건립하거나, 행정 기능을 임시 이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곳도 존재</li> <li>- 다만 하드웨어 확충, 인력 확보, 재정 지원 등이 아직 미흡하다고 응답한 시설이 다수. 향후 효율적인 ‘광역 방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강화가 요구된다는 평가</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b>규슈·오키나와 2월 도산 6개월 연속 증가. 의료·복지 업종 고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2월 기준 규슈·오키나와 지역의 기업 도산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임. 환자 수 감소와 인력난을 겪는 의료·복지 분야가 새로운 취약 지점으로 지목</li> <li>- 특히 서비스업 내에서 의료·복지 관련 도산이 두드러지며, 무이자·무담보 대출 상황이 본격화되는 올여름 이후 파산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자금 흐름이 막히면 도산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li> <li>- 부채 총액도 3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로 전환, 대형 파산이 연달아 발생하며 통계를 끌어올림. 전문가들은 재무 안정화 노력과 업종 변화 등 사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li> </ul>
	<p>○ <b>후쿠오카현 합계출산율, 6년 연속 하락. 현 수준 1.2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쿠오카현의 2023년 합계출산율이 1.26으로 떨어지며, 지난 6년간 하락 추세를 이어감. 전국 순위도 28위권에 머물러, 지방 대도시 특유의 결혼·출산 기피 분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분석</li> <li>- 일시적으로 주변 현에서 유입된 청년 인구 덕에 출산율이 오르기도 했으나, 2015년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세가 두드러짐. 14세 이하 인구도 20년 전 대비 약 10% 감소, 현 전체의 저출산 문제 심화</li> <li>- 조사 결과, 가정들은 주로 양육비 부담과 직장·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 계획을 줄이는 경향. 이에 남성 육아휴직 확충, 양육 보조금 확대 등 정책 지원 강화가 절실하며,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태국	<p>○ 태국, 말레이시아에 홍수 대책·무역 통로 사업 신속 추진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3월 6일,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만나 골록강 유역 홍수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양국 국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및 협력 방안을 논의. 반복되는 홍수로 지역사회 피해가 큰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li> <li>- 태국 정부는 통합 유역 관리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과 국경 경계 표지 인증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며, 사다오 부킷 카유 히탐 국경 검문소도 2025년 10월까지 완공해 인적·물적 교류를 더욱 원활히 추진할 계획</li> <li>- 이를 통해 지역 연결성과 재난 예방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말레이시아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양국 간 무역 확장과 주민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li> </ul>
필리핀	<p>○ 필리핀, 2025년 1월 관광수입 팬데믹 이전 수준 상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관광부(DOT)는 2025년 1월 관광수입이 약 653억 페소(약 1조 6,553억 원)를 돌파했다고 밝힘.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월 대비 151% 이상 증가로, 관광 분야 회복은 물론 확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li> <li>- 크리스티나 프라스코 관광부 장관은 이러한 고성장이 경제 안정과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 이는 마르코스 주니어 행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적·공평한 관광산업 육성과도 부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됨</li> <li>- 필리핀은 2025년 1~2월에만 116만 7천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한국·미국·일본 순으로 방문객이 많음. 정부와 업계는 관광 혁신 및 마케팅을 통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p>○ 말레이시아, 美 AI 칩 수출 제한 시 자국 기술력 강화 가능성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TI)는 미국의 AI 칩 수출 제한 조치가 오히려 자국의 생성형 AI 생태계 활성화와 2030년까지 3천 개 스마트 공장 설립 목표 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li> <li>- AI 칩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의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수적이지만, 말레이시아 당국은 해당 제한이 데이터센터 자체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li> <li>-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 MOU를 활용하는 등 잠재적 제약에 대비하고,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AI 칩 생산 협력도 모색할 방침</li> </ul>
	<p>○ 말레이시아, 전력 가격 안정화 위해 석탄 발전 유지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에너지전환수자원부는 낮은 생산 비용을 고려해 석탄을 주요 전력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소비자 전기요금 안정을 동시에 노린다는 입장</li> <li>- 2024년 기준 반도 지역 설비용량에서 석탄이 36.4%를 차지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강도 45% 감축(2030년) 및 탄소중립(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li> <li>- 대신 발전소의 혼소 발전, 가동 중단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전환 방안을 모색 중이며, 원자력을 저탄소 대안으로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에너지 믹스를 활용할 계획</li> </ul>
	<p>○ 말레이시아, 연내 디지털경제프레임워크협정 타결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리우 친 통 차관은 2025년 말까지 디지털경제프레임워크협정(DEFA)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핵심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구상임</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경제프레임워크협정은 데이터 관리, 사이버 보안, 디지털 기술에서 아세안 회원국의 역량을 제고하고,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방식으로 단계적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임</li> <li>- 말레이시아가 2030년까지 디지털 선도 국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국가 의제와도 맞닿아 있으며, 협정 체결 시 자국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역내 디지털 통합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li> </ul>
	<p>○ 말레이시아, 英 ARM과 반도체 산업 육성 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은 영국 반도체 기업 ARM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신산업발전계획 2030 및 국가반도체 전략의 일환으로 현지 반도체 생태계를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li> <li>- 이번 협력을 통해 1만 명 규모의 IC 설계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선정된 말레이시아 기업은 ARM의 첨단기술 및 IP 포트폴리오에 우선 접근권을 부여받을 예정</li> <li>- 말레이시아는 2024년에 3,785억 링깃(약 124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으며, 이번 파트너십으로 중소기업 성장 기회와 전문 일자리가 창출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말레이시아의 지위가 더욱 강화될 전망</li> </ul>
	<p>○ 말레이시아, 중국·인도와 토륨 원자력 기술 협력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리강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은 토륨을 원자력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인도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양국은 토륨 기반 기술 개발 선도국으로 인정 취득</li> <li>- 토륨은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이 적고 매장량이 풍부해 미래 원자력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시범 공장을 설립해 국내 광물에서 토륨 추출·정제 기술을 연구 중</li> <li>- 말레이시아는 1969년 IAEA 협정 이래 원자력 분야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INPRO 등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 가능한 원자력 에너지원 개발과 혁신 촉진에 힘쓰고 있는 실정</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p>○ 말레이시아, 美 관세 대응 위해 아세안 시장 개척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반덤핑 조사에 맞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아세안 시장 개척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li> <li>- 말레이시아 측은 WTO 규정을 준수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산업이 미국 태양광업계에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함</li> <li>- 한편, MITI는 아세안 회원국 간 태양광 패널 공급망을 더욱 견고히 하고, 연구개발(R&amp;D) 투자 장려와 녹색기술 혁신을 통해 역내 녹색기술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li> </ul>
캄보디아	<p>○ 캄보디아, 홍콩무역발전국과 기술 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험 반디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 장관과 홍콩무역발전국(HKTDC) 대표단은 3월 5일 기술혁신과 무역 활성화를 주제로 회담을 가졌으며, 핀테크 및 전자결제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진 상황</li> <li>- 캄보디아 측은 국내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기술 솔루션을 빠르게 도입해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홍콩무역발전국의 무역 박람회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활용을 제안</li> <li>- 양측은 상호 투자 및 시장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며, 홍콩의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캄보디아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할 방침</li> </ul> <p>○ 캄보디아, 아세안 비즈니스 서밋 2025 개최...연계성 강화 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3월 6일 개최된 ‘아세안 연계성 가속화: 인적자원, 인프라, 무역’ 을 주제로 한 아세안 비즈니스 서밋 2025를 개막했으며, 191개 해외기업과 124개 현지기업 등 총 510명이 참석</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b>캄보디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리는 인프라 개발, 디지털 연계성, 무역 촉진이 지역 성장과 아세안 경제공동체 발전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했고,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측도 민관 협력을 통해 역내 경쟁력 및 포용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li> <li>- 해외 투자자들은 캄보디아의 전략적 위치와 지속 개선되는 인프라를 주목하고 있으며, 아세안 전체가 2030년 GDP 10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캄보디아는 역내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li> </ul>
	<p>○ <b>캄보디아, ASEAN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위한 공정·투명 무역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WTO 회원국으로서 무역 자유화와 투명성을 중시하며, ASEAN은 물론 EU, 미국, 중국, 한국, UAE 등 주요 파트너와의 통상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li> <li>- 캄보디아는 무역장벽 완화, 통관·기업 등록 절차 간소화, 법률 체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ASEAN 내 협력을 촉진하고, 주요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시장 접근성을 넓힐 계획</li> <li>- 지난해 캄보디아는 414개 프로젝트에 약 6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2023~2024년 무역액도 큰 폭으로 증가. 이는 캄보디아의 정책 효과와 시장 잠재력을 입증하며,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투자 확대 기대</li> </ul>

※ 본 발간물은 온라인 상의 자료를 재정리한 것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